Ⅳ 한국인의 금융이해력과 디지털 금융이해력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2년마다 OECD 산하 경제 금융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력기구(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INFE)이 제시한 표준방법론에 따라 우리나라 만 18~79세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조사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22년부터는 OCED/INFE의 변경된 표준에 따라 디지털 금융이해력을 평가하는 항목도 포함되었다. 이 장에서는 2022년 금융이해력 및 디지털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1. 한국인의 금융이해력

OECD/INFE 표준 금융이해력 수준은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의 세 가지 영역으로 평가하며, 금융이해력 수준은 세 항목을 7:9:4로 가중평균하여 합산한 후 100점으로 환산한다. 각 항목의 정의와 평가를 위한 세부 설문 항목 및 한국인의 평균 점수는 〈표 Ⅳ-1〉과 〈그림 Ⅳ-1〉에 제시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2020년 65.1점, 2022년 66.5점으로 2020년 OECD 평균인 62.5점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세부 영역 중 금융지식 수준이 가장 높고, 금융태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OECD 평균은 금융지식 65.8 〉 금융태도 61.6 〉 금융행위 59.2 순서임). 금융지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복리계산에 매우 취약하고, 분산투자 개념 점수도 낮았다. 학력, 소득, 연령 등 인구 특성에 따라 금융이해력에 차이가 있었고, 특히 학력의 영향이 가장 컸다. 고졸 미만과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 측면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취약한 편이었다(〈그림 Ⅳ-2〉 참조).

9) OECD 2022년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OECD(2020b)에 있는 2020년 결과와 비교함. OECD 국가 평균에는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포함됨

〈표 Ⅳ-1〉 2022년 한국인의 평균 금융이해력 수준

영역	정의	평가 설문 항목	점수	합산점수
금융 지식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하고 적절한 정보에 입각한 금융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지식	인플레이션 의미	80.8	75.5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78.3	
		이자 개념의 이해	93.8	
		단리계산	75.9	
		복리계산	41.4	
		위험과 수익간 관계	88.2	
		분산투자 개념	70.4	
금융 행위	재무계획 및 예산관리,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등 금융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하는 행위	가계예산 관리	80.6	65.8
		적극적인 저축활동	97.8	
		신중한 구매	50.3	
		청구대금 적기 지급	68.6	
		평소 재무상황 점검	55.7	
		장기 재무목표 설정	48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50.8	
		가계수지 적자 해소	89.1	
금융 태도	소비와 저축, 현재와 미래, 돈의 존재가치 등에 대한 선호도로 저축이나 미래를 선호할수록 평가점수가 높아짐	저축보다 소비 선호	52.3	52.4
		미래보다 현재 선호	59.2	
		돈은 쓰기 위해 존재	45.7	
금융 이해력	건전한 금융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금융복지(Financial Well-being)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지, 지식, 기능, 태도와 행동의 조합	금융지식(9), 금융행위(4), 금융태도(4)의 합산	-	66.5

자료: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3. 29),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저자가 재구성 함

OECD(2020b)의 타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금융지식 중 복리계산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나, 대다수의 보험상품에 있어 복리와 위험분산은 보험상품의 핵심 경쟁력이자 보험이 소비자 편익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기본원리로, 이 분야의 취약성은 우리 국민이 보험의 진정한 혜택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Ⅳ-1〉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력 지도

자료: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3. 29),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저자가 재구성 함

OECD(2020b)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객관적 금융지식 수준(〈표 Ⅳ-1〉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평가대상 25개국 중 10위에 해당하여 중간 정도였으나, 스스로의 금융지식 수준을 묻는 문항에 대한 답으로 평가된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은 25개국 중 24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우리나라 국민은 실제로 알고 있는 지식수준에 비해 금융지식에 대한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식에 대한 낮은 자신감은 금융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스스로 복잡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0)]

금융행위는 직접 금융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우리나라의 실질적 금융접근성과 국민의 금융역량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점수이다. 금융행위는 적극적 저축 여부, 가계수지 적자 수준이나 청구대금 납부와 같은 항목을 담고 있어, 금융에 대한 이해도뿐 아니라 가계 및 경제 전반적인 요소의 결과인 현 가계 경제상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적극적 저축활동은 거의 만점에 가까워 제도권 금융계좌를 전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기본적 금융접근성은 문제가 없고, 실질 활용도도 높은 것

10) Tang and Baker(2016)는 같은 수준의 객관적 금융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자존감에 따라 주관적 금융이해력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며,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금융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

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우리 국민은 장기 재무목표 설정 및 평소 재무상황 점검,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의 선택과 신중한 구매의 영역에서 취약성을 보였다. 특히 가장 취약한 재무목표의 설정은 미래를 대비하고 계획하는 것에서 구매의 이유가 생겨나는 연금이나 보험에 중요한 개념인데, 이 분야의 취약성은 보험상품이 줄 수 있는 편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스스로 보험 구매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할 의사를 가지기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여 관련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이해력 중 가장 직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금융태도이다. 우리나라는 서구권에 비해 저축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으나,[11]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소비를 선호하고, 현재를 선호하며,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응답을 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다(Money is there to be spent"라는 항목의 점수가 낮았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의미로는 저축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라기보다 너무 소비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소비의 미덕을 강조하는 뉘앙스가 담겨있는 말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금융태도 설문 항목 포함 시 제외하거나 문구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2] 응답자 특성별 분포에서도 금융지식과 금융행위 점수는 연령대에 있어서는 30대와 40대가 가장 높고, 고령층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 금융이해력과 관련된 일반적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금융태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수가 높고, 고졸 이하, 중저소득층의 점수가 높은 다소 다른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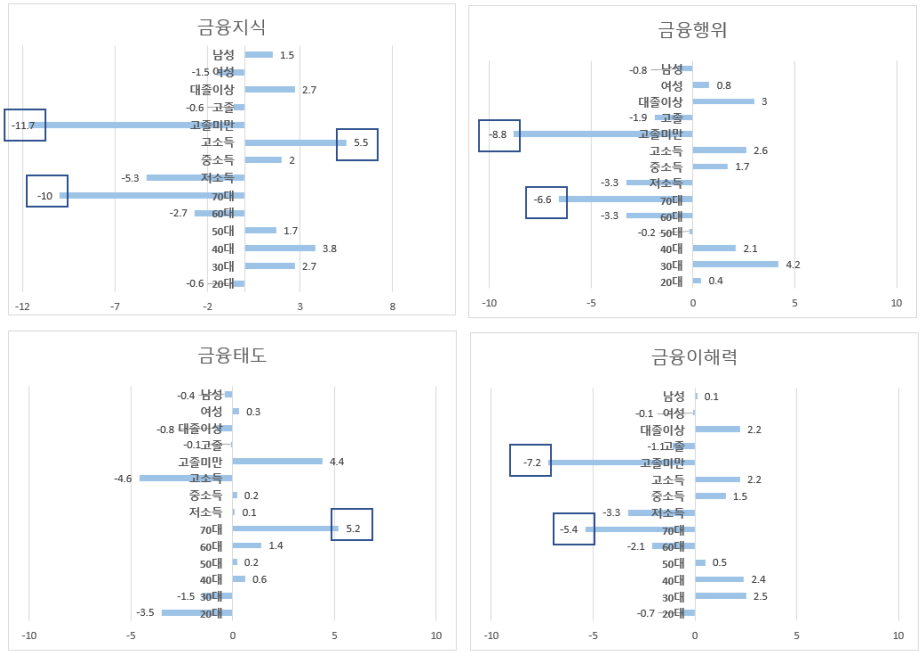
〈그림 Ⅳ-3〉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된 동안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점수의 변화를, 〈그림 Ⅳ-4〉는 세부 설문 항목별 2018년과 2022년의 점수 차이를 보여준다. 금융지식과 금융행위 점수는 약간 상승하였으나, 금융태도 점수만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소비지향성이 강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전 연령층에서 나타났으나, 금융지식 점수의 상승은 70대에서 가장 컸고, 금융태도 점수의 하락은 변화가 거의 없었던 7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일어났다. 70대 이상의 고연령에서의 금융지식 점수가 가장 낮았고, 2022년 70대 응답자의

11) theglobaleconomy.com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저축률은 85개국 중 12위이고, OECD(2020) 통계에 따르면, 적극적 저축을 하고 있다고 한 응답비율이 OECD 국가 평균 68%였으나 우리나라는 96.3%로 3위를 차지함(https://www.theglobaleconomy.com/rankings/savings/)

12) OECD(2022)에 따르면 이 항목은 2022년부터 필수 항목이 아닌 선택 항목이 되었음

반은 2018년 60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 부분 응답자 풀의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고, 앞으로도 응답자의 평균 금융지식 수준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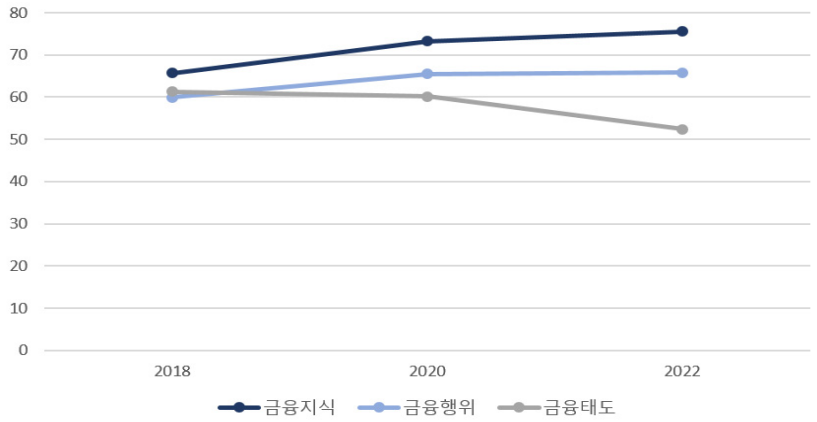
〈그림 Ⅳ-2〉 응답자 특성별 금융이해력



주: 1) 20대는 18~29세임
2) 대졸 이상은 전문대졸 이상을 뜻함
3)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소득, 3천만 원~7천만 원은 중소득층, 3천만 원 미만은 저소득층으로 구분함
자료: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3. 29),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저자가 재구성 함

〈그림 Ⅳ-3〉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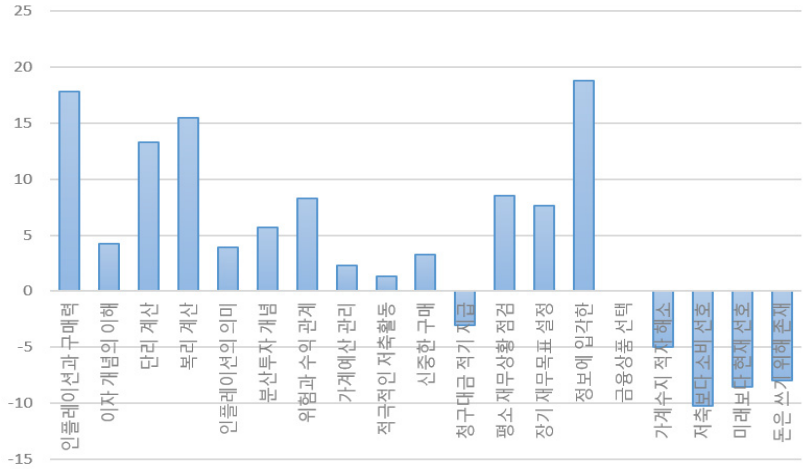
(단위: 점수)



자료: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1. 28), “2018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3. 29), “2020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3. 29),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저자가 재구성 함

〈그림 Ⅳ-4〉 세부항목별 금융이해력 변화(2018~2022년)

(단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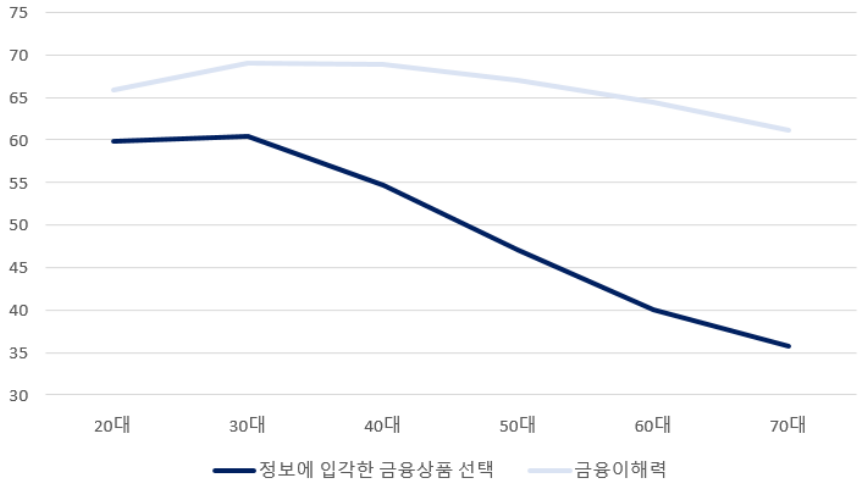
주: 2018년, 2022년 점수 차이

자료: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1. 28), “2018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3. 29), “2020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3. 29),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저자가 재구성 함

세부항목별 변화를 보면 금융지식 측면에서는 전 영역의 점수가 상승하였고, 특히 인플레이션과 구매력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2018~2022년 사이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경험을 통한 학습이 강력하게 일어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의 선택과, 평소 재무상황 점검의 항목 점수도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러한 영역은 디지털 금융환경이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그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융이해력 조사의 여러 질문 문항 중,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문항이 연령별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5〉 참조). 이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의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력 변화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가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행위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13)]

〈그림 Ⅳ-5〉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연령별 비교

(단위: 점수)



자료: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3. 29),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저자가 재구성 함

반면 청구대금의 적기 지급 및 가계수지 적자 관련 항목은 점수가 하락했는데, 이는 금리 상승과 해당 기간의 가계부채의 증가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나, 금융태도 전 영역에서의 소비 성향 증가와 신중한 구매 점수의 상대적으로 약한 상승 등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쉬워진 대출의 영향과 모바일 페이 등으로 인한 충동구매 및 과소비에 대한 점검을 요한다.

13) 내생성 통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간단한 통계 수치만을 관찰한 가설로, 디지털금융이 금융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

2. 한국인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금융역량 강화에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OECD/INFE 표준은 디지털 금융이해력 설문 문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는 2022년 〈표 Ⅳ-2〉의 10개 문항을 추가하여 디지털 금융이해력 수준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표 Ⅳ-2〉 디지털 금융이해력 조사 설문 문항

구분	내용
디지털 금융지식	1. 디지털 금융계약은 서면 계약서상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내가 온라인상에서 공유한 개인정보는 개인 맞춤 광고나 금융상품 제안 등을 통해 나를 표적화(Targeting)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3. 암호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법정화폐이다.
디지털 금융행위	4. 나는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나 PIN을 친한 친구와 공유한다.
	5.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받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6. 나는 내 개인정보를 SNS와 같은 온라인에 공유한다.
	7. 나는 온라인 쇼핑과 개인 금융에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디지털 금융태도	8. 나는 공공 Wi-Fi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9. 온라인에서 거래하기 전에 웹사이트의 보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이용약관을 읽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 OECD(2022)의 저자 번역으로 실제로 설문에 사용된 문구 표현은 약간 다를 수 있음
자료: OECD(2022)

〈표 Ⅱ-1〉에서 제시하였던 Lyons and Kass-Hanna(2021)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구성요소들과, Choung et al.(2023)에서 사용된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의 구성요소(〈표 Ⅳ-3〉 참조)와 OECD/INFE 설문 내용을 비교하면, OECD/INFE의 점수는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요소 중 디지털 금융지식과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금융 안전과 보호에 관한 항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디지털 지식과 역량,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사용역량 등에 대한 항목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는 디지털 금융을 실제로 적절히 잘 사용하는 행위나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신뢰,

태도 등에 대한 전반적 수준에 대한 이해를 위해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인지 및 활용 여부, 전반적 디지털 사용역량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 우리나라 국민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얼마나 보안의식을 가지고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을 활용하고 있는가에 관한 점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표 Ⅳ-3〉 Choung et al.(2023) 디지털 금융이해력 설문 문항

디지털 지식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장치를 켜고 끄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장치를 충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문자, 메신저 또는 생체 인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생체인식기능(예: 지문, 얼굴인식)을 통해 디지털 장치의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Wi-Fi에 엑세스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또는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예: 비밀번호 변경 또는 재설정)을 알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변경/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금융서비스(이하, 'DFS')에 대한 인식
온라인 또는 휴대폰을 통해 뱅킹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오라인 또는 모바일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휴대폰을 통해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법을 이해합니다.
온라인/모바일 주식 거래의 목적과 사용법을 이해합니다.
온라인/모바일 대출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법을 이해합니다.
DFS 실무 노하우
온라인/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법을 이해합니다.
DFS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DFS에 대한 본인 인증 설정 방법(예: 문자, 메신저 또는 생체인식)을 알고 있습니다.
DFS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을 탐색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표 Ⅳ-3〉 계속

DFS 실무 노하우
DFS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금융서비스(예: 송금, 주식거래, 공과금 납부, 대출신청)를 시작하고 완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금융 보안 역량: 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DFS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거래 또는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DFS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을 통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모바일 금융 거래 시 불필요한 수수료를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의 저축 또는 대출 서비스 사기 등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DFS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DFS의 로그인 및 거래 자격 증명을 정기적으로 변경합니다.
DFS의 로그인/거래 자격 증명이 유출된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금융기관에서 보낸 URL은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컴퓨터 또는 휴대폰에서 정기적으로 악성코드 탐지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보이스피싱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료: Choung et al.(2023) Table A2을 번역함

〈표 Ⅳ-4〉 2022년 한국인의 평균 디지털 금융이해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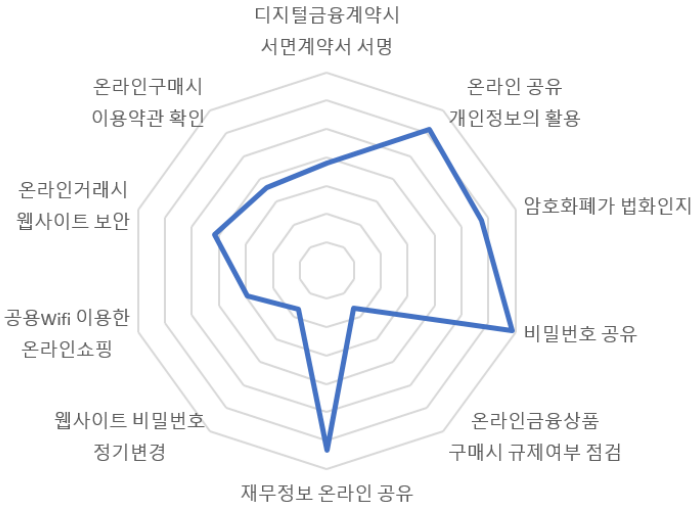
영역	평가 설문 항목	점수	합산점수
디지털 금융지식	디지털 금융계약 시 서면계약서 서명	37.8	52.2
	온라인 공유 개인정보의 활용	61.4	
	암호화폐 법화 여부	57.4	
디지털 금융행위	비밀번호 공유	68.7	41.3
	온라인금융상품 구매 시 규제 여부 점검	16.3	
	재무정보 온라인 공유	63.3	
	웹사이트 비밀번호 정기변경	16.9	
디지털 금융태도	공용 Wifi 이용한 온라인쇼핑	29.5	35.8
	온라인거래 시 웹사이트 보안	41.7	
	온라인구매 시 이용약관 확인	36.3	

〈표 Ⅳ-4〉 계속

영역	평가 설문 항목	점수	합산점수
디지털 금융이해력	디지털 금융지식(3), 디지털 금융행위(4), 디지털 금융태도(3)의 합산	-	42.9

자료: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3. 29),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저자가 재구성 함

〈그림 Ⅳ-6〉 2022년 한국인의 평균 디지털 금융이해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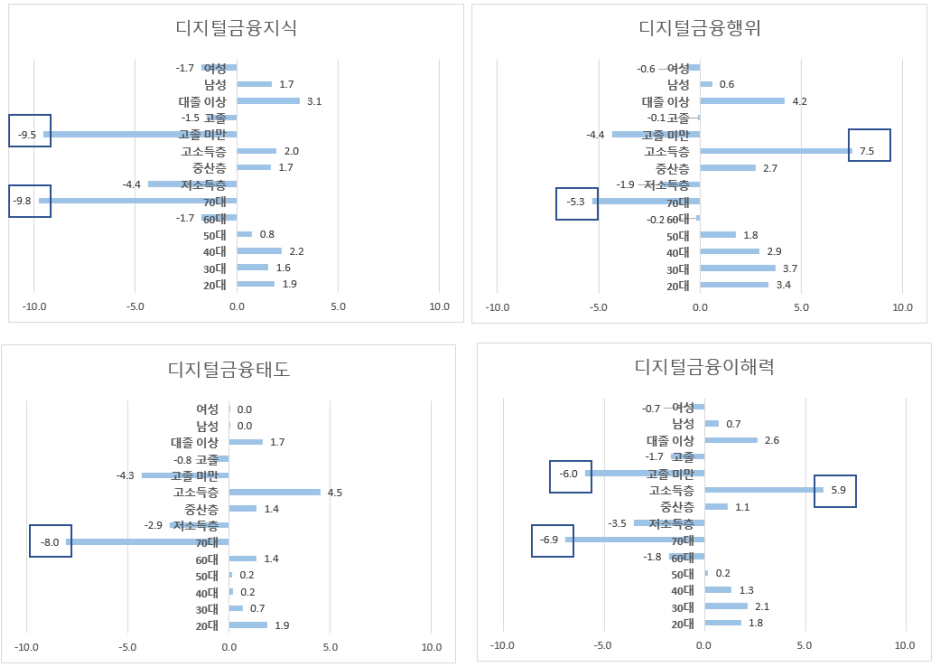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3. 29),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저자가 재구성 함

〈표 Ⅳ-4〉과 〈그림 Ⅳ-6〉은 2022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디지털 금융이해력 수준 부문에 대한 통계를 제시한다. 종합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는 42.9점으로 금융이해력 점수에 비해 현저히 낮고, 특히 디지털 금융태도 분야가 지식이나 행위 부문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 점수를 보면, 온라인 금융상품 구매 시 해당 금융회사가 규제되고 있는 금융사인지를 점검하는가와 웹사이트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가에 관한 문항의 점수가 16점대로 매우 낮았다. 온라인에서 개인의 재무정보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 경향이 커서 가장 기본적인 보안에 대한 의식과 수동적 보호 행위는 하고 있으나, 적극적 보안 행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인터넷 보안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 2022년 인터넷 이용실

태조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신생 핀테크 금융서비스 사용 시 금융사기에 노출될 위험과, 모바일뱅킹 등의 서비스 사용 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피해 위험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하고, 교육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그림 Ⅳ-7〉에서는 응답자 특성별 디지털 금융이해력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전체 평균값과 인구 특성 집단별 금융이해력 값의 차를 제시한다. 금융지식, 행위, 태도의 전 영역에서 고졸 미만, 70대가 가장 낮은 값을 가졌고, 고소득층의 금융행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은 40대가, 행위는 30대가, 태도는 20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70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큰 폭의 차이가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이해력과 마찬가지로, 성별 간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크지 않았다. 금융이해력에서는 금융태도 영역이 다소 다른 패턴을 보인 것과 달리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모든 영역에서 고령층, 저학력의 이해력이 낮았다.

〈그림 Ⅳ-7〉 응답자 특성별 디지털 금융이해력 차이



주: 인구 특성 집단별 평균 금융이해력과 전체평균 이해력 값의 차이 값을 표시함. 양수는 해당 집단의 금융이해력이 평균 이상임을, 음수는 평균 이하임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3. 29),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저자가 재구성 함

〈그림 Ⅳ-8〉은 세부 질문 항목에 대한 인구 특성별 금융이해력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해당 집단의 평균 이해력 값과 전체평균의 차이를 제시한다. 진한 색은 평균보다 5점 이상 점수가 높고, 흰색은 평균보다 5점 이상 점수가 낮은 집단이다. 고소득층이 대체로 높은 점수를, 고졸 미만과 70대가 특히 낮은 점수의 분포를 보여준다. 특히 고소득층은 개인정보 활용, 비밀번호 관리, 홈페이지 보안 등 온라인 금융거래의 보안에 관한 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여주어 금융계좌에 관리하는 자산이 많은 경우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0대와 고졸 미만의 경우 디지털 금융에서도 지식에서의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웹사이트 보안, 비밀번호 정기변경과 같은 보안 관련 항목은 연령에 반비례해, 연령층이 높을수록 디지털 보안 측면의 취약성이 특히 커진다는 것을 보였다. 규제나 약관 점검 영역, 암호화폐와 관련된 구체적 지식 등은 인구 특성과는 크게 관련이 없었고, 비밀번호나 재무정보의 온라인 공개는 평균 점수도 높을 뿐 아니라 인구 특성 집단 간 차이도 크지 않은 편이었다. 각 세부항목에 대한 분석에서도 온라인 거래 시 약관을 확인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남성이 높은 점수를 받긴 하였으나, 성별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디지털 태도의 경우, MZ 세대는 웹사이트 보안에 대해서는 주의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공용 Wi-Fi의 사용이나 약관 확인 등에 있어서는 기성세대보다 취약했다.

〈그림 Ⅳ-8〉 인구특성별 금융이해력 분포: 세부 항목 응답 결과

	연령별						소득계층			학력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고졸 미만	고졸	대졸 이상	남성	여성
디지털금융계약시 서면계약서서명	1.9	2.9	1.1	-0.3	-2.7	-5.5	-1.9	0.3	-3.7	-5.0	-3.6	3.8	2.1	-2.2
온라인 공유 개인정보의 활용	2.2	-0.9	5.6	-0.6	-0.3	**-12.4**	-5.9	3.7	**10.4**	**-13.4**	-0.5	3.2	1.9	-1.9
암호화폐가 법화인지	1.6	2.7	0.0	3.3	-2.2	**-11.4**	-5.4	1.1	-0.7	**-10.3**	-0.3	2.3	1.2	-1.2
비밀번호 공유	0.2	3.0	2.7	0.3	-5.5	-1.5	-3.8	0.1	7.5	-3.1	-3.7	3.4	-0.1	0.2
온라인금융상품 구매시 규제여부 점검	-2.3	4.8	3.5	-0.2	-3.2	-5.2	-3.7	1.1	**10.1**	-7.6	-0.2	1.7	0.1	-0.1
재무정보 온라인 공유	2.5	2.7	-1.0	-1.1	-2.0	-1.0	-0.3	-1.0	5.6	-1.0	-3.5	3.0	1.8	-1.8
웹사이트 비밀번호 정기변경	6.1	3.7	0.7	-0.1	-6.3	-8.3	-5.8	1.8	**16.4**	-6.5	-2.9	3.4	0.5	-0.5
공용Wifi 이용한 온라인쇼핑	-3.4	-4.5	-2.4	2.4	9.2	-3.2	2.0	0.7	-1.6	4.1	2.1	-2.1	0.8	-0.9
온라인거래시 웹사이트 보안	**10.6**	9.1	-1.4	1.2	-7.1	**-23.9**	-9.6	1.5	**11.4**	**-17.6**	-4.6	6.8	0.7	-0.7
온라인구매시 이용약관 확인	-1.6	-2.6	4.3	-3.2	1.9	3.0	-1.3	1.9	3.6	0.5	0.0	0.2	-1.5	1.7

자료: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3. 29),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저자가 재구성 함

위의 자료를 해석할 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금융행위 설문의 경우,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음'과 같이 행위 자체에 대한 질문인데, 온라인 거래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는 '공유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어서, 해당 질문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바르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준다고 하기가 어렵다. 즉, 70대가 평균값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이유는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바람직한 행위를 잘하고 있어서일 수도 있으나, 다수의 응답자가 공유할 비밀번호가 없어서 공유하지 않았다는 디지털 거래 비활성에 기인할 수도 있다. 앞 장에서 본 것과 같이 70대 이상의 경우 인터넷뱅킹 사용자가 30% 미만인 것과 같이 인구 특성별로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사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인구 특성별 디지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값에 편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금융서비스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행동을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궁극적으로 금융포용과 금융복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아래의 〈그림 Ⅳ-9〉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2022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에서 분석하여 배포한 디지털 금융이해력과 금융포용 관계이다.[14] 결과를 보면,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매우 낮은 최하위 그룹과 최상위 그룹을 제외하면, 65세 전의 구간에서는 금융포용과 디지털 금융이해력과의 관계가 거의 없다. 단,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양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 그래프에서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금융포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금융 활용도가 높았던 사람들의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높은 것인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금융소외를 겪던 고령층이 디지털 금융으로 인하여 금융포용이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아래의 결과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 또는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높아지는 역인과관계일 가능성이 크나,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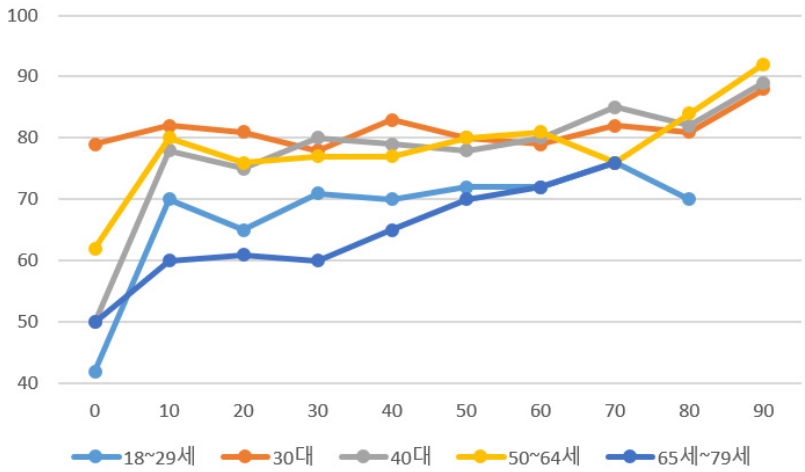
Choung et al.(2023)은 25~59세 사이의 한국 성인 1,615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이해력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금융복지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표 Ⅳ-3〉의 문항들과 OECD/INFE의 금융지식 7개 문항으로 평가하였으며, 금융복지는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가 제시한 표준 문항 및 방법론으로 평가하였다.[15]

---

14) OCED/INFE 2022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포용은 지급결제, 예금, 대출, 보험, 투자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활용하고, 인지하며 가입을 할수록 더 높은 값을 가짐(OECD 2022)

15) 금융복지 수준은 다음과 같은 문항의 응답을 점수화한 값임. ①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음, ② 재정적 미래를 확보하고 있음, ③ 재정 상황 때문에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절대 가질 수 없을 것 같음, ④ 내 돈 관리 방식 때문에 인생을 즐길 수 있음, ⑤ 재정적으로 겨우 버티고 있음, ⑥ 현재 저축하고 있거나 저축할 돈이 오래

〈그림 Ⅳ-9〉 디지털 금융이해력과 금융포용의 관계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 3. 27), "디지털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및 시사점"

〈표 Ⅳ-5〉 Choung et al.(2023) 설문조사 디지털 금융이해력 결과

세부항목	점수
금융지식	77.7
디지털 지식	92.8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인식	88.6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무 노하우	88
디지털 금융 보안 역량	75
디지털 금융이해력	83.9

주: Choung et al.(2023)의 Table 1에 제공된 디지털 금융이해력 세부항목별 평균 점수를 비교를 위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Choung et. al.(2023) Table 1

〈표 Ⅳ-5〉는 응답자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수준을 제시한다. 먼저 금융지식은 77.7점으로,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조사의 20~60대의 평균 금융지식 점수와 거의 같다. 디지털 금융이해력 세부 항목별로는 디지털 지식, 금융서비스에 대한 인식, 실무 노하우에 비해 보안과

가지 못할까 걱정됨, ⑦ 결혼식, 생일 등 행사에 선물을 주면 한 달 동안 재정에 부담이 됨, ⑧ 월말에 돈이 남음, ⑨ 재정 관리가 뒤처져 있음, ⑩ 재정이 내 삶을 통제함

관련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60세 미만 성인의 경우 대체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잘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이는 보안 측면의 질문 문항이 주를 이루었던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디지털 금융이해력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보인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16] 이 조사에서도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층의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높았고,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높은 그룹에서 평균 자산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앞서 〈그림 Ⅳ-9〉에서 우리나라 20~50대 성인의 경우 디지털 금융이해력과 금융포용 간의 관계는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디지털 금융이해력과 금융복지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할까? Choung et al.(2023)에 따르면, 금융복지는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모든 차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금융지식 수준, 디지털 보안 능력과 관계가 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Ⅳ-6〉의 결과는 금융지식보다(Model (1)), 디지털 금융 보안역량이(Model (5)), 그리고 금융지식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금융복지와(Model(7)) 더 큰 상관관계가 있고, Model (6)의 결과는 금융지식을 통제한 후에도, 디지털 보안역량이 금융복지와 독립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Ⅳ-6〉 디지털 금융이해력과 금융복지와의 관계

구분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5)	Model(6)	Model(7)
금융지식	0.703***	-	-	-	-	0.501***	-
디지털 지식	-	0.873***	-	-	-	0.109	-
DFS 인식	-	-	0.976***	-	-	-0.025	-
DFS 사용 노하우	-	-	-	1.084***	-	0.279	-
디지털 보안역량	-	-	-	-	1.306***	1.054***	-
디지털 금융이해력	-	-	-	-	-	-	1.330***

주: 1) 종속변수는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IRT(Item Response Theory) 방식으로 측정한 금융복지 수준임
2)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금융지식, 디지털지식, 인식, 노하우, 개인 보호 점수의 합산임
3) OLS 모델 회귀분석 결과로, 나이, 성별, 교육, 소득, 자산, 위험자산 보유 여부, 자가 여부 등 통제변수를 통제하였으나 주요 변수의 요약 결과만 제시함
4) *** p<0.01; **p<0.05; * p<0.1 신뢰수준을 뜻함

자료: Choung et al.(2023) Table 2를 재구성함

16) 이 설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기본적으로 디지털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응답자들만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음. 세부항목 내용에 대한 상대적 비교는 유효하나, 응답자의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절대적 수준은 평균 국민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큼

3. 소결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력과 디지털 금융이해력 수준, 디지털 금융이해력과 금융복지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OECD(2020b)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국민은 금융지식 수준이 특히 높았고, 금융행위도 평균 이상이었으나, 저축보다 소비하는 경향과 관련된 태도 점수에서는 평균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2020년, 2022년 조사에서 소비를 선호하는 부정적 금융 태도가 전 연령에서 강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보였다. 금융지식 측면에서는 고령층의 금융지식 수준이 2018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 가장 취약한 계층의 금융이해력 문제가 다소 완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금융에서 디지털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금융감독원 금융이해력 조사에 디지털 금융이해력에 관한 항목이 2022년부터 추가되었다. 해당 조사에서는 디지털 금융이해력 평가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등과 안전한 디지털 금융 이용과 관련된 역량을 주로 평가하였다. 조사 결과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는 42.9점으로 상당히 낮았으며, 특히 온라인 금융상품 구매 시 규제 점검 여부나 디지털 금융서비스 사용 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가의 항목에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은 온라인에서 개인의 재무정보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아 수동적 보호는 하고 있으나, 비밀번호 변경, 규제, 약관 확인 등 적극적 보안행위는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특성별 상대적 수준 분포로는 금융이해력과 마찬가지로 고령층, 저소득, 저학력 집단에서 디지털 금융이해력도 낮게 나타났다. 단, 20대의 경우 금융이해력은 낮은 편이었으나,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평균 이상이었고, 30대는 금융이해력, 디지털 금융이해력 수준이 모두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학력은 금융이해력과 더 큰 연관이 있었고, 소득은 디지털 금융이해력과 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특히 70대 이상은 Ⅲ장에서 디지털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디지털 금융포용 수준도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고령층은 전반적인 디지털 정보화 수준도 낮았고, 금융이해력 및 디지털 금융이해력 수준도 모두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층은 금융, 디지털 모두 접근성을 제외하고 역량, 활용, 이해력 모두 미흡한 수준이다. 고령층에서는 낮은 디지털 금융포용이 새로운 금융 소외를 만들 수 있기는 하나,

금융이해력, 디지털 역량, 디지털 금융이해력 등이 모두 취약한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없는 디지털 금융포용은 편익 증가보다 더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0대의 경우 기본적 모바일 뱅킹과 결제의 사용 비율 등 디지털 금융포용의 정도가 급격히 개선되었다. 특히 50대는 모바일 뱅킹으로 잔액 조회를 하는 등 가장 기본적 디지털 금융서비스 활용을 넘어서서 비대면 금융상품 가입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금융이해력 측면에서는 20대보다 높으나 디지털 정보화 수준 및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40대 이하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융의 사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금융이해력 수준이 나쁘지 않은 이 연령대 사용자들의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향상될 수 있다면, 디지털 금융서비스 활용 증가와 편익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역량, 활용, 금융이해력이 다른 세대보다 뛰어난 MZ 세대에게는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고 디지털 금융이해력 측면에서 가장 양호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20대의 경우 금융이해력이 중년층보다 떨어지고, 디지털 금융 행위와 태도에 있어서도 약관 확인, 규제 점검, 공용 Wi-Fi 사용, 개인정보 활용 등에 있어 고령층과 비슷한 수준의 취약성을 보인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해력은 낮으므로 위험 수준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나 암호화폐의 무분별한 투자, 과도한 대출, 과소비 등의 핀테크 서비스가 가져온 문제점들은 주로 이들 세대에 적용되는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다른 측면이긴 하나 고령층만을 디지털 금융이해력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계층별로 차별화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력 및 디지털 금융이해력 수준의 부분적 취약성을 보면, 보험상품과 관련된 이해도가 금융의 여러 영역 중 가장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보험의 편익은 기본적으로 위험의 분산에서 나오며, 종신보험이나 연금 등의 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리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결과 여러 문항 중 복리 개념의 이해와 위험 분산의 개념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행위에도 장기 재무목표 설정이 가장 취약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은 보험상품의 편익과 구매 의사를 생겨나게 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행위에 취약성을 보인다. 스스로 상품을 이해하고, 구매 의사를 가지고 직접 적극적으로 구매행위를 하는 비대면 방식의 전환이 보험산업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보험상품이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이며, 보험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일 것이다. 게다가 보험상품은 대다수 예금이나 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비해, 특약이나 보장수준 등에 대한 선택도 요구하는 등 훨씬 복잡하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더 많이 요구되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리스크가 클 수 있다. 디지털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전 약관을 확인하는 태도 점수도 상당히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복잡한 계약의 경우 그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핀테크 서비스 등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기 재무목표의 설정은 2018년에 비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의 선택 문항에 비해서는 느린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미래보다 현재를 선호하는 등의 미래를 대비하는 태도의 변화도 보험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우 기본이 되는 개념과 행동, 태도는 물론이고, 보험계약의 복잡성 등은 가입 채널 측면에서 대다수 보험상품의 디지털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며, 보험의 경우 단순히 빠르고, 저렴하고, 쉬운 채널의 전환보다 이러한 분야에 있어 교육과 서비스의 개선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